

아동이 지각하는 아버지 특성이 자기조절능력 및 또래관계기술에 미치는 영향

박미순 · 김현숙*
(신라대학교)

Influence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Perceived Father's Trait on Self-Regulating Skills and Peer Relationship Skills

Mi-Soon PARK · Hyun-Sook KIM*
(Silla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nfluence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perceived father's trait on self-regulating skills and peer relationship skills as well as the influence of father's trait according to gender of children on self-regulation skills and peer relationship skills. The summary of main results of this is as follows: It can be seen that by diminishing time-bomb and fatherless and enhancing compassionate mentor among sub-factors of father's trait as perceived by children, self-regulation skills and peer relationship skills of children could be improved. And it was understood that in the influence of father's trait as perceived by children on self-regulation skills and peer relationship skills, there is a need to consider gender difference of male and female children.

Key words : Father's trait, Self-regulating skill, Peer relationship skill

I. 서론

아동기는 유아기의 자기중심성이 감소하면서 사회정서적인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로, 자신의 사고와 행동을 규제하기 위한 내면화 과정으로서 자기조절능력이 급격하게 증가하고(Chung, Og-Bun, 2002), 또래관계가 생활의 중심이 되기 시작한다. 최근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는 학교폭력 및 왕따와 같은 사회적 문제는 청소년들이 조기에 자기조절능력을 갖추고, 원만한 또래관계를 형성할 줄 아는 것이 시급한 발달 과제임을 시사한다.

자기조절능력은 순간의 충동적인 욕구나 행동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이다(Kopp, 1982). 높은 자기조절능력을 보이는 청소년은 공격이나 폭력, 비행 및 범죄행동 등을 포함한 문제행동수준이 낮은 것(Longshore, 1998)으로 보고되고 있다. 자기조절능력은 스트레스, 우울, 낮은 자존감과 같은 정서적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며(Finkenauer, Engels & Baumeister, 2005), 청소년의 경우 자기조절능력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된다(Kim, In-Og, 2008). 이처럼 자기조절능력은 심리사회적 적응수

† Corresponding author : 010-2576-8261, water21c@hanmail.net

* 이 논문은 박미순(2014년)의 신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을 요약 수정한 것임.

준의 주요 변인으로, 아동의 문제 행동의 발생과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녀의 자기조절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하다(Lee, Jung-Yoon & Choi, Su-Mi, 2011).

또한 아동에게 있어 또래관계는 개인의 사회정서적인 발달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특히 또래는 아동의 자아개념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환경적 변인으로, 또래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요구된다. 그러나 또래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어울리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적절한 또래관계기술이 부족하다면 또래로부터 수용되기 어려울 수 있다(Park, Jin -Jae, 2002). 또래관계기술은 타인과 협력하고, 자신의 생각을 상황에 맞게 표현하고 나타내며, 자신의 감정이나 행동을 상황에 맞게 조절하는 것과 관련된다(Kim, Soon-Ja, 1998). 이러한 또래관계기술의 적절한 사용은 원만한 또래관계를 형성하게 하여 즐거움과 정서적 지지를 느끼게 하고 소속감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보고된다(Moon, Mu-Kyung, 2005). 또래관계기술에 대한 관심은 학교생활 적응, 학업성취도, 가족진강성, 자아분화 등과 같이 심리 내외적인 변인들과 관련하여 연구되고 있는 바(An, Jee-sun, 2011; Kim, Yun -Kyung & Lee, Ok-Kyung, 2001; Moon, Mu-Kyung, 2005), 이에 또래관계기술의 습득에 영향을 주는 보다 다양한 변인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가족환경은 최초의 사회로서, 부모의 특성은 아동의 자기조절능력과 또래관계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 중의 하나이다. 우선, 여러 선행연구에서 부모 요인이 자기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즉, 부모의 역할은 부모와 자녀관계의 질을 결정해주고, 자녀의 인지적·정서적 발달에 중요한 요인으로서 아동의 성격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합리적·수용적·온정적이면서 독립심을 격려하고 지지하는 가정환경은 자녀의 자기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Kim, Hye-Sun, 2005).

아동의 또래관계기술은 또래갈등을 감소시키고

(Sim, Bo-Sook, 2008), 또래관계 질을 높이며(Park, Sun-Hee, 2009), 또래와의 상호작용에서 긍정적인 자기제시 기대를 높이는(Yang, Yoon-Ran & Oh, Kyung-Ja, 2005)등 또래관계의 강력한 예측변인으로서의 역할을 시사하는 연구들이 많이 수행되었다. 그러나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또래관계기술에 대한 부모 요인에 관한 연구는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 아동의 또래관계에서 있어서 부모의 영향은 많은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또래관계기술에 대한 부모 요인의 중요성 또한 또래관계에 대한 부모 변인들의 선행연구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부모 요인은 자녀의 자기조절능력 뿐만 아니라 또래관계기술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는 예전과 달리 여성의 사회진출이 많아지면서 가정에서 자녀양육에 대한 아버지의 역할 비중이 단순히 어머니의 비중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존재로서 점차 그 위상이 변화하고 있는 추세이다(Cho, Seon-Hwa, 2011). 아버지의 역할은 질적으로 어머니와 다른 역할로서 아무리 어머니가 역할 수행을 훌륭하게 하더라도 아버지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다(Dudson, 1975). 즉 아버지는 사회의 대리인 또는 자녀 사회화의 매개자로서 자녀들의 행동 형성에 어머니나 또래친구보다 더 실재적이고 직접적인 역할을 하며(Kim, Eui-Soon, 1984), 아버지가 자녀와 어떻게 지내는가 하는 것은 자녀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Lee, In-Soo, 1997).

특히, 아버지와 관련된 연구는 1970년대를 지나면서 자녀양육에 있어서 아버지 역할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게 됨에 따라 아버지 역할의 독자적인 특성을 강조하는 연구들이 요구되기 시작하였다(Cho, Seon-Hwa, 2011). 또한 대부분의 아버지와 관련된 변인들은 부모를 다룬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자녀양육행동, 부모 역할, 부모의 의사소통 등에 관한 고찰을 통해 이루고 있다. 그러나

최근 연구들에서는 아버지의 심리적 성격 및 특성에 관한 연구들(Kim, Hee-Hwa, 2008; Lee, Soo-Bok, 2005)이 수행되는 경향이 있다. 더 나아가 Poulter(2006)는 아버지의 각기 다른 고유한 특질과 행동패턴, 규칙, 삶에 대한 태도를 아버지 특성이라고 보고, 자녀는 이러한 아버지 특성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일과 생활, 더 크게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영향을 받는다고 본다. Poulter는 아버지의 폭력과 위협이 강조되면 자녀들은 분노, 긴장, 정서적 폭발성이 존재할 수 있으며, 아버지가 자비로운 멘토성을 지니면 자녀는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아버지 특성과 자녀에 대한 영향에 관해 보고하고 있다. 이에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이나 또래관계기술에 있어서도 아버지의 어떤 특성에 영향을 받는지에 관한 이해가 필요하다. 국내의 아버지 연구의 동향을 보아도 2003년을 기점으로 활성화되고 있지만(Cho, Seon-Hwa, 2011), 아버지 특성과 관련하여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이나 또래관계변인은 아직 미흡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초등학교 5, 6학년은 신체적, 사회적, 인지적 변화가 급격한 초기 청소년기로 접어드는 전환기이며, 또래동조성이 증가하는 시기라는 점에서 자기조절능력 및 또래관계기술이 가지는 의미는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한편, Langlois와 Downs(1980)는 아버지가 남아와 여아를 다른 방식으로 사회화시킨다고 주장하였다. Kim, Eui-Soon(1984)는 아버지가 자녀와 친밀도가 높은 경우 남아는 지배성, 충동성, 사회성과 관계가 있었고, 여아의 경우는 안정성, 사려성, 사회성에서 차이를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아버지의 특성에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도 남녀로 구분하여 차별적인 관계를 가정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지각하는 아버지의 특성이 자기조절능력 및 또래관계기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초등학교생의 자기조절능력과 또래관계기술 향상을 위한 바람직한 아버지 교육의 기초자료 제공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첫째, 아동이 지각하는 아버지 특성이 자기조절능력 및 또래관계기술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둘째, 남자 아동이 지각하는 아버지 특성이 자기조절능력 및 또래관계기술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셋째, 여자 아동이 지각하는 아버지 특성이 자기조절능력 및 또래관계기술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이다.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U광역시에 소재한 2개 초등학교의 5, 6학년 345명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총 345부 중 329부가 수거되었고, 그 중 불성실한 응답자 3명을 제외한 326명의 자료가 최종 분석되었다. 학년과 성별 분포는 5학년 174명, 6학년 152명, 남학생 156명(47.9%), 여학생 170명(52.1%)이었다.

2. 측정도구

가. 아버지 특성 척도

아버지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Poulter(2006)가 분류한 아버지 특성을 바탕으로 Kim, In-Gi(2010)가 개발한 척도를 초등학교생에 맞추어 수정 보완된 Woo, Si-Jeong(2012)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9개 문항으로 성취강요성 9문항, 폭력성 6문항, 정서단절성 5문항, 멘토성 6문항, 무관심성 3문항의 5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신뢰도(Cronbach's α)는 차례로 .79, .82, .61, .80, .67이며, 전체문항은 .76이다.

나. 자기조절능력 척도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을 알아보기 위해 Huh, Jung-Kyoung(2003)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인지적요인 11문항과 동기적요인 8문항, 행동적요인 8문항의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신뢰도는 차례로 .77, .74, .65이였으며, 전체문항은 .86이다.

다. 또래관계 척도

아동의 또래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Yang, Yoon Ran과 Oh, Kyung-Ja(2005)가 제작한 또래관계기술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9문항으로 주도성 9문항과 협동-공감 10문항의 2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신뢰도는 차례로 .84, .84이며, 전체문항은 .87이다.

3. 자료분석

아동의 자기조절능력 및 또래관계기술에 대한 아버지특성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 및 중다회귀분석이 사용되었다.

Ⅲ. 연구 결과

1. 아동이 지각하는 아버지 특성이 자기조절 능력 및 또래관계기술에 미치는 영향

아동이 지각하는 아버지특성이 자기조절능력과 또래관계기술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에 앞서 세 변인 간 상관을 산출하였다. <Table 1>를 보면, 아버지 특성의 하위변수 간에 어느 정도의 상관의 크기($r=.45\sim.68$, $r=-.42\sim-.50$)를 보이고는 있으나, 다중공선성으로 간주할 만큼 상관이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아버지 특성과 자기조절능력의 상관($r=-.30$, $p<.001$)은 부적상관을 보여주었고, 또래관계기술과의 상관($r=-.24$, $p<.001$)도 부적상관을 보여, 아버지 특성이 높을수록 아동의 자기조절능력 및 또래관계기술이 낮은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먼저, <Table 2>에서는 아버지특성이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아버지특성은 자기조절능력에 대해 22.0%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버지특성의 하위요인 중 폭력성은 자기조절능력에 부정적 영향을($\beta=-.19$, $p<.05$), 멘토성($\beta=.22$, $p<.001$)은 자기조절능력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Table 1> Correlations among Father's trait, Self-regulating skills, and Peer relationship skills

	Father's trait					Self-regulating skills					Peer relationship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Superachieving	1												
2.Time-bomb	.68***	1											
3.Passive	.60***	.63***	1										
4.Compassionate mentor	-.42***	-.50***	-.47***	1									
5.Fatherless	.45***	.53***	.58***	-.42***	1								
6. Total	.84***	.78***	.72***	-.15**	.62***	1							
7.Cognitive	-.25***	-.33***	-.31***	.34***	-.28***	-.24***	1						
8.Motivational	-.25***	-.31***	-.27***	.32***	-.24***	-.22***	.67***	1					
9.Active	-.31***	-.35***	-.23***	.29***	-.28***	-.29***	.38***	.43***	1				
10.Total	-.33***	-.40***	-.33***	.39***	-.33***	-.30***	.88***	.86***	.69***	1			
11.Initiative	-.18**	-.24***	-.17**	.28***	-.20***	-.14*	.44***	.44***	.19**	.45***	1		
12.Corporation /Empathy	-.30***	-.78***	-.23***	.21***	-.20***	-.27***	.49***	.49***	.52***	.61***	.45***	1	
13.Total	-.28***	-.30***	-.23***	.29***	-.24***	-.24***	.55***	.55***	.41***	.62***	.86***	.84***	1

*** $p<.001$, ** $p<.01$, * $p<.05$

<Table 2> Influence of Children's Perceived Father's Trait on Self-Regulating Skills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B	SE	β	t	F	R ²
Self-regulating skills	(Constant)	94.38	5.41	-	17.44***	17.71***	.22
	Superachieving	-.10	.17	-.04	-.58		
	Time-bomb	-.67	.27	-.19	-2.53*		
	Passive	.14	.36	-.03	-.38		
	Compassionate mentor	.59	.16	.22	3.71***		
	Fatherless	-.52	.34	-.01	-1.54		

*** $p < .001$, * $p < .05$

<Table 3> Influence of Children's Perceived Father's Trait on Peer Relationship Skills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B	SE	β	t	F	R ²
Peer relationship skills	(Constant)	55.41	3.71	-	14.95***	9.29***	.13
	Superachieving	-.18	.12	-.11	-.51		
	Time-bomb	-.27	.18	-.12	-1.50*		
	Passive	-.10	.25	-.03	-.42		
	Compassionate mentor	.29	.11	.17	2.69**		
	Fatherless	-.25	.23	-.07	-1.08		

*** $p < .001$, ** $p < .01$, * $p < .05$

다음으로, <Table 3>에서는 아동이 지각하는 아버지특성이 또래관계기술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아버지 특성은 또래관계기술에 대해 13%의 설명력을 보여주었고, 아버지특성의 하위요인 중 폭력성($\beta = -.12$, $p < .05$)은 부정적 영향을, 멘토성($\beta = .17$, $p < .01$)은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2. 남자 아동이 지각하는 아버지특성이 자

기조절능력 및 또래관계기술에 미치는 영향

먼저, 남자 아동이 지각하는 아버지특성이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아버지특성은 남자아동의 자기조절능력에 대해 21%의 설명력을 지녔으며, 하위요인 중 폭력성($\beta = -.26$, $p < .01$)은 부정적으로, 멘토성($\beta = .24$, $p < .01$)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Table 4> Influence of Boy's Perceived Father's Trait on Self-Regulating Skills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B	SE	β	t	F	R ²
Self-regulating skills	(Constant)	94.17	7.9	-	11.92***	7.89***	.21
	Superachieving	-.26	.25	-.19	-1.04		
	Time-bomb	-.96	.59	-.21	-1.63**		
	Passive	.47	.71	.08	.66		
	Compassionate mentor	.96	.33	.39	2.94**		
	Fatherless	.30	.59	.05	.51		

*** $p < .001$, ** $p < .01$

<Table 5> Influence of Boy's Perceived Father's Trait on Peer Relationship Skills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B	SE	β	t	F	R ²
	(Constant)	52.88	5.37	-	9.56***		
Peer relationship skills	Superachieving	-.03	.17	-.03	-.16	5.65***	.16
	Time-bomb	-.48	.40	-.17	-1.68*		
	Passive	-.02	.48	-.01	-.04		
	Compassionate mentor	.49	.22	.26	2.21**		
	Fatherless	-.31	.40	-.08	-.79		

*** $p < .001$, ** $p < .01$, * $p < .05$

다음으로, 남자 아동이 지각하는 아버지특성이 또래관계기술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아버지특성은 남자아동의 또래관계기술에 대해 16%의 설명력을 보여주었고, 하위요인 중 폭력성($\beta = -.17, p < .05$)은 부정적으로, 멘토성($\beta = .24, p < .01$)은 긍정적으로 또래관계기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여자 아동이 지각하는 아버지특성이 자기조절능력 및 또래관계기술에 미치는 영향

먼저, 여자 아동이 지각하는 아버지특성이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결과

는 <Table 6>과 같다. 아버지특성은 여자아동의 자기조절능력에 대해 23%의 설명력을 보여주었고, 하위요인 중 멘토성($\beta = .18, p < .05$)은 긍정적으로, 무관심성($\beta = -.17, p < .05$)은 부정적으로 자기조절능력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여자 아동이 지각하는 아버지특성이 또래관계기술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아버지특성은 여자아동의 또래관계기술에 대해 11%의 설명력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으나, 아버지특성의 하위요인별로는 여자아동의 또래관계기술을 예측하는 변인은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6> Influence of Girl's Perceived Father's Trait on Self-Regulating Skills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B	SE	β	t	F	R ²
	(Constant)	95.86	7.90	-	12.77***		
Self-regulating skills	Superachieving	.05	.024	.04	.19	9.77***	.23
	Time-bomb	-.41	.52	-.14	-1.20		
	Passive	-.44	.58	-.10	-.93		
	Compassionate mentor	.47	.32	.18	2.09*		
	Fatherless	-.84	.50	-.17	-1.84*		

*** $p < .001$, * $p < .05$

<Table 7> Influence of Girl's Perceived Father's Trait on Peer Relationship Skills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B	SE	β	t	F	R ²
	(Constant)	60.47		-	11.53***		
Peer relationship skills	Superachieving	-.28	.42	-.18	-1.62	3.95**	.11
	Time-bomb	-.48	.40	-.16	-1.20		
	Passive	-.21	.48	.01	-.04		
	Compassionate mentor	.49	.22	.26	2.21		
	Fatherless	-.31	.40	-.08	-.29		

*** $p < .001$, ** $p < .01$

IV. 논 의

본 연구는 아동이 지각하는 아버지 특성이 자기조절능력 및 또래관계기술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알아보고, 성별에 따라 아버지 특성이 자기조절능력 및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이 지각하는 아버지특성이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아버지특성의 하위요인 중 폭력성과 멘토성이 자기조절능력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폭력성은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에 부정적으로, 멘토성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Poulter(2006)는 폭력성을 가진 아버지는 자신의 분노를 주저하지 않고 자녀와 아내, 동료 그리고 세상을 향해 소리 지르는 사람으로 언제 화를 터뜨릴지 예측할 수 없는 경향이 있어서, 만성적인 감정폭발에 끊임없이 노출되는 아이는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고 보았는데, 이러한 측면이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을 발달시키는 데 저해요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관련지어 볼 수 있다. 또한 Lee, Hyun-Ji (2010)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온정과 사랑으로 관심 있게 돌보며 지지하고 수용하는 감정으로 대할수록 자기조절능력은 높아진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의 멘토성을 말과 행동이 지지적이고 정서적 애착을 유지하면서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특성(Poulter, 2006)으로 파악한다는 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즉, 아버지의 멘토성은 합리적 설명 등의 긍정적인 태도와 관련되어 자녀의 자기조절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아버지의 폭력성과 같은 특성은 아버지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관련되어 자기조절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Yoon, Young-Shin, 2007)고 볼 수 있다.

둘째, 아동이 지각하는 아버지특성이 또래관계기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아버지특성의 하위요인 중 폭력성은 또래관계기술에 부정적

으로, 멘토성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논리적인 훈육을 사용하는 아버지의 자녀가 강압적인 양육을 사용하는 아버지의 자녀보다 덜 공격적인 놀이를 하며 또래로부터 더 높은 수용도를 보였다(Hart, Ladd & Burleson, 1990)는 연구와 관련지어 볼 수 있다. 이는 또래관계기술이 또래 수용과 일관된 상관관계를 갖는 변인들의 예측변인이라는 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Yang, Yoon Ran & Oh, Kyung-Ja, 2005). 또한 An, Jee-Sun(2011)은 또래관계기술과 사회적 기술은 동일한 차원의 연속선상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같은 점에서 아버지의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양육행동이 아동의 낮은 사회적 능력을 예측한다(Woo, Jung-Hee, Lee, Mi-Sook & Jun, Chun-Ae, 2003; Yang Kyung-Soo, 2011)는 선행연구는 아버지의 폭력성이 또래관계기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것을 지지한다. 또한 아버지의 자율적이고 애정적인 양육태도와 양육에의 적극적인 참여는 아동의 또래 유능성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Choi, Jee-Hee, 2001)는 연구결과는 아버지 멘토성이 또래관계기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본 연구의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즉, 아버지가 자녀에게 변함없이 긍정적인 생각과 능동적인 행동을 보여줌으로써 자녀에게 신뢰와 믿음을 주는 특성인 멘토성과, 아버지가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자주 폭력을 사용하는 폭력성과 같은 부정적인 특성은 특히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 영향력 있는 요인으로 아버지 교육 및 상담에서의 적용에서 비중있게 다루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성별에 따라서 아동이 지각하는 아버지 특성의 하위요인들이 자기조절능력 및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에 관해 우선, 남자 아동이 지각하는 아버지특성의 하위요인 중 폭력성과 멘토성은 자기조절능력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아의 경우 아버지가 따뜻하고 도덕적으로 성숙한 양육을 하였을 경우 정서적으로 더 성숙되어 자신의 정서를 잘 조절할 수

있다는 Hornstein(1970)의 보고와 같은 맥락이다. 또한 아버지가 권위를 강조하여 자녀를 엄격하게 대하며, 자신의 감정대로 비일관적으로 벌을 사용하거나 강요하는 강압적인 양육행동을 할 때 남아는 정서조절능력이나 통제력에 부정적 영향을 받는다(Park, Hye-Kyong, 2002)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남자 아동이 지각하는 아버지특성의 하위요인 중 폭력성과 멘토성은 또래관계를 예측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버지가 권위를 강조하여 자녀를 엄격하게 대하며, 자신의 감정대로 비일관적으로 벌을 사용하거나 강요하는 양육을 받은 남아아동은 부족한 정서조절과 상황에 맞는 역기능적인 반응으로 인하여 우정이나 또래 집단에 대한 소속감을 손상시키는 경향이 있다(Park, Hye-Kyong, 2002)는 보고와 맥을 같이한다. 또한 아버지가 강압적인 양육을 적게 할수록 남아의 대인적응성이 높았으며(Na, Ji-Hye, 2012), 아버지의 지시성은 남아의 인기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Chae, Hye-Yeon, 2000)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들은 Kim, Kwang-woong (1978)이 부자관계에 따른 남아의 인성특징에 관한 연구에서 부자관계가 친밀하고 시간 있는 대로 함께 놀며 대화를 나눈 남아는 그렇지 못한 관계에 비하여 안정성, 사려성 등이 높았다는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이다.

다음으로, 여자 아동이 지각하는 아버지특성이 자기조절능력 및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아버지특성의 하위요인 중 멘토성은 자기조절능력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 특성 중 무관심성은 감정표현의 인식하며, 멘토성은 말과 행동의 지지, 변함없는정서적 애착이 유지되는 것과 관련이 있는 특성으로(Poulter, 2006), 정서적인 요인과 관계성의 요인이 반영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여자는 남자보다 대인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타인의 감정과 행동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고 본 An, Jee-Sun(2011)의 주장

을 고려해 볼 때, 아버지의 특성 중 무관심성과 멘토성이 아동의 자기조절기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이는 아버지 상담 및 교육에 있어 여자 자녀와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무관심성, 멘토성과 관련된 측면, 즉 대인관계적 요소들을 더 비중있게 다룰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반면, 여자 아동이 지각하는 아버지특성의 하위요인에서 또래관계를 유의하게 예측하는 변인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여아의 경우 아버지의 양육행동 중 어떠한 변인도 여아의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Na, Ji-Hye(2012)의 연구와 일치한다. 이와 같이 아버지 특성이 아동의 자기조절능력과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성차의 결과는 아버지의 양육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개별적 영향이 유아의 성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였다는 Na, Ji-Hye(2012)의 연구를 지지한다. 또한 부모의 양육행동은 동일한 성의 자녀관계에서 동일시 경향이나 활동이나 관심의 공유 경향이 높아 같은 성의 자녀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과도 같은 맥락이다(Aquilino, 1994; Lee, Dwyer & Coward, 1993).

이러한 결론을 토대로 이 연구의 제한점을 살펴보고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아버지특성은 아동의 자기보고에 의한 것으로 응답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 있으므로 실제 아버지 특성과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아버지 자신이 지각하는 아버지특성을 평정하도록 함으로써 아버지특성에 대한 쌍방향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자기조절능력과 또래관계기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 특성이라는 변인만을 두었으나, 현실적으로는 자기조절능력 및 또래관계기술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인들이 함께 영향을 주고받을 것이다. 따라서 이후 연구에서는 자기조절능력 및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인들과 아버지 변인을 같이 연구함으로써 아버지 특성이 자기조

절능력 및 또래관계기술에 영향을 미치는 매커니즘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최근 우리나라의 핵가족화, 자녀 수의 감소, 경제적 불안정성 등과 같은 사회 경제적 변화 속에서 자녀양육에 있어서도 변화하고 혼란을 겪을 수 있는 아버지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본다.

References

- An, Jee-Sun(2011). Family strengths, self-differentiation and peer relational skills perceived by children, Yonsei University.
- Aquilino, W. S.(1994) "Later life parental divorce and widowhood: Impaction young adults' assessment of parent-child relation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6, 908~922.
- Chae, Hye-Yeon(2000). The relation among children's perceived parent-child relationship, self-concept, and peer status in 4th and 8th grade student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 Cho, Seon-Hwa(2011). Analysis of trends in korea research on father, *Korean Journal of Play Therapy*, 14(4), 1~27.
- Choi, Jee-Hee(2001). Relations among paternal involvement, parenting behaviors, and children's peer competence, Yonsei University.
- Chung, Og-Bun(2002). *Child development*, Seoul: HakJisa.
- Dudson, F.(1975), *How to father*. New York: Pengu Book Co., Inc.
- Finkenauer, C. · Engels, R. C. M. E. & Baumeister, R. F.(2005). Parenting behavior and adolescent behavioral and emotional problems: The role of self-control.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9, 58~69.
- Hart, C. H. · Ladd, G. W. & Bursleson, B. R.(1990). Children' s expectations of the outcomes of social strategies: Relations with sociometric status and maternal disciplinary styles, *Child Development*, 61, 127~137.
- Hornstein, H. A.(1970). *The influence of social models on helping*, New York: Academic Press.
- Huh, Jung-Kyoung(2003). A study on the scale development of self-regulation and the related variables of children in the school age, Sookmyung Women's University.
- Kim, Eui-Soon(1984). The effect of father's child-rearing attitudes on children's personality: focused on 5th, Kookmin University.
- Kim, Hee-Hwa(2008). Father's child-rearing involvement with adolescent Children: Relationships with marital communication, self-esteem and social support,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9(5), 181~195.
- Kim, Hye-Sun(2005). The relations among intelligence, parenting environment and self-regulation of preschool children, *Journal of the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3(4), 17~26.
- Kim, In-Gi(2010). Analysis of path between college student's perceived father's trait, social anxiety, career search self-efficacy, and career exploration behavior,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20(2), 29~56.
- Kim, In-Og(2008). The relationship among the adolescent's self-regulation ability, parents' rearing attitude, peer relation, and self-esteem, Sogang University.
- Kim, Kwang-woong(1978). A study on Personality Characteristics of boys according to of father-son relationships, *SooK-Myung Journal of Child Study*, 3(1), 7~20.
- Kim, Soon-Ja(1998). Developmental trends in social skills of a primary school children, Daejin University.
- Kim, Yun-Kyung & Lee, Ok-Kyung(2001). Social - Emotional Development: The Effects of Peer Relations on Psychosocial Adjustments and Behavior Characteristics in Children and Young Adolescents,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14(2), 65~82.
- Kopp, C. B.(1982). Regulation of distress and negative emotions: A development view, *Developmental Psychology*, 25(3), 343~354.
- Langlois, J. H. & Downs. A. C.(1980). Mothers, fathers and peers as socialization agents of sex-type play behaviors in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5, 1237~1247.
- Lee, G. R. · J. W. Dwyer, & R. T. Coward (1993). Gender differences inparent care: Demographic factors same-gender preference, *Journal of Gerontology*,

- Social Science, 48, 9~16.
- Lee, Hyun-Ji(2010). The relationship of paternal child-rearing attitudes and involvement level with young children's self-regulation, Keimyung University.
- Lee, In-Soo(1997).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ather's child rearing involvement and children's social-emotional competence, Sookmyung Women's University.
- Lee, Jung-Yoon & Choi, Su-Mi(2011). Perceived parenting styles and early adolescent problem behaviors: The mediating effect of self-regulation,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2(2), 635~650.
- Lee, Soon-Bok(2005). The influence of fathers' characteristics on the creativity of gifted and non-gifted preschool children,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3(2), 135~151.
- Longshore, D.(1998). Self-control and criminal opportunity: A prospective test of the general theory of crime, Social Problems, 45, 102~113.
- Moon, Mu-Kung(2005). The understanding on learning and development : focused on peer relationship, Changisa.
- Na, Ji-Hye(2012). Maternal and paternal parenting behaviors affecting preschooler's social competence, Ewha Womans University.
- Park, Hye-Kyong(2002). Father's parenting behaviors, Son's emotional regulation as related to Son's Aggression, Ewha Womans University.
- Park, Jin-Jae(2002). Effects of social skill intervention program for improving children's peer interaction and peer acceptance, Yonsei University.
- Park, Sun-Hee(2009). Interparent conflict and children's peer relation: The roles of conflict resolution strategy, peer relation skill and misinterpretation, Kyungnam University.
- Poulter, S. B.(2006). The father factor: How your father's legacy impacts your career, New York: Prometheus Books.
- Sim, Bo-Sook(2008). Parent-Adolescents Attachment and Peer Relation: The Role of Peer Relational Skills, Kyungnam University
- Woo, Jung-Hee · Lee, Mi-Sook & Jun, Chun-Ae (2003). The relationship between fathers' marital satisfaction, child rearing attitude and children's social competence,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1(12), 91~101.
- Woo, Si-Jeong(2012). The Study of the influence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perceived father's trait on anxiety, achievement motive and self-efficacy, Baekseok University.
- Yang, Kyung-Soo(2011).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ather's child-rearing attitude and children's prosocial behavior,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9(2), 75~84.
- Yang, Yoon-Ran & Oh, Kyung-Ja(2005). The mechanism of the influence of peer relational skills on social anxiety: The mediational effect of self-presentational expectancy moderated by self-insight,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4(4), 961~971.
- Yoon, Young-Shin(2007). A study on self-regulatory ability of adolescents and its relationship with personality, parenting, behavior problems, and life stres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
- Received : 19 July, 2014
 - Revised : 10 October, 2014
 - Accepted : 11 October, 2014